

오월, 묵은 기억을 꺼내다

박몽구 시인, 5·18 42주년 앞두고 '5월, 놀린 기억을 펴다' 발간

시민군 항쟁상황 등 59편 작품 수록 "시민들 한·아픔 풀어졌으면"

"더 늦기 전에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던 묵은 기억을 꺼내 시로 쓰고 싶었어요. 5월 21일 당시의 기억이 여전히 새롭습니다. 불타는 MBC 방송국 앞에서 김준태 시인을 만났는데 그때 '시인은 현장에서 서 있어야 하는데 훗날 우리가 본 것을 꼭 세상에 알리자'라고 하더군요. 5·18민중항쟁에 참여하고 지켜본 입장에서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박몽구 시인. 전남대 재학생으로 5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금남로 시위를 주도했으며 투옥, 제적됐다. 이후 학교로 돌아와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아 투쟁을 전개했다.

그가 이번에 5·18 광주민중항쟁 42주년을 앞두고 신작 시집을 펴냈다. '5월, 놀린 기억을 펴다'(시와 문화)는 학생과 공수특전단이 격돌한 5월 항쟁의 발단에서부터 금남로 대회전, 윤상원 열사 절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모두 59편의 작품은 파산한 인간애와 이타 정신을 감동 깊게 그렸다.

박 시인은 이번 시집을 펴낸 직접적인 계기가 "당시 계엄군의 엄혹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을 구한 의사와 간호사 등 살신성인을 실천한 이들의 인간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5월 항쟁 당시 그는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전체가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 또한 대자보 쓰기, 주먹밥 조달, 시민결기대회 사회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 5·18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접하고 직접 현장 답사를

하면서 항쟁의 숨은 진실을 보다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집 발간을 계기로 당시의 실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광주시민의 한과 아픔이 신원됐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그의 말에선 여전히 발표 명령을 내린 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최근 "쿠데타의 주역들이 당시 전일빌딩에서 벌여졌던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등 발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사실"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5·18의 진상을 환기할 필요를 느꼈다고 한다.

작품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집약된다. 하나는 시민군들의 항쟁 상황을 단편 서사시 형태로 담은 것과 또 하나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혈 등 시민들을 구조하는 대열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오월 전사'들의 마음을 담아낸 시가 그것이다.

'금남로 대회전 1', '전남대 정문 앞 혈전' 등의 시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대인시장의 어머니들', '택시 운전사 1' 등은 후자에 속한다. 이들 작품들은 아니 작품집에 수록된 모든 시들은 "깊은 곳에 묵혀 두었던 부채"를 털어내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물이다.

"도청에서 출발하는/ 보급 버스를 타고/ 드들강 굽이지는 효천마을로 갔다-// 막 모내기를 끝낸 들에는 초록이 무성했지만/ 청년들은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시민군에 지원해 가거나/ 계엄군의 총 끝을 피해 숨어 지내기 때문이리라(후략)"

위 시 '다같이 시민군'은 5·18 항쟁이 누구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광주시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가 현장성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물음에 시인은 "제 경험에 그대로 녹아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 저격병이 숨어서 총탄을 날리는 가운데서도 마을 사람들이 나와 김밥과 시원한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함께 '5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던 나종영 시인은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한 시민군뿐만 아니라 구두땀, 미장공, 택시운전자, 청년노동자 등 기층 민중들의 희생과 헌신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었다. 새벽 눈은 그치고 여명의 붉은 빛이 밝아온다. 스러져 간 별빛들을 모아, 그가 그토록 오기를 바랐던 '깨끗한 새벽'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평한다.

한편 박몽구 시인은 전남대 영문학과 한양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시집 '십자가의 꿈', '단단한 허공'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어린 천사들

다큐작가 조영만 사진집 '人愛3' 출간

아이들의 일상을 포착한 사진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출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조영만의 세번째 사진집 '人愛3' 어린 천사들이 최근 출간됐다.



인간의 진솔한 삶의 흔적을 진중한 기록으로 담은 조 작가는 코로나 19로 변해버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사진집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집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동안 어린이집의 일상을 포착한 사진들이 담겨있다.

사진집은 총 세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첫번째 장과 두번째 장에는 2019년에 작업한 사진들이 담겼으며, 어린이집의 일상과 견학,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장구를 배우는 모습, 어린이집 통학 버스 창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아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해맑게 웃는 모습, 명절을 맞아 한복을 입고 포즈를 취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Humane Love: Little Angels 20'

또 고무마발, 염전 등 자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장면도 수록했다.

마지막 장에는 2020년부터 찍은 사진을 수록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열을 재며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한편 조 작가는 개인전 '홀로서 50년 울엄마', '청자를 지키는 사람들' 등을 열었고 단채전 '인사동 사진상회', '한발 사진상회' 등에 참여했다. 2014년부터는 '人愛(인애)'를 주제로 사진집 '人愛 밤골마을 사람들', '人愛 2 수산시장 사람들' 등을 펴냈다.

조 작가는 "요즘은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아침에 일어나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통해 나의 어린시절을 돌아본다"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사동서 만나는 광주중견작가 '7인의 자문자답'

28일까지 서울 G&J 갤러리...코로나 시대에 대한 작가들의 성찰

'코로나시대에 던지는 질문과 답.'

2016년 서울에 문을 연 'G&J 갤러리'는 광주·전남 문화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이 공동운영하고 있다. 역량있는 지역 작가 작품을 서울 미술계 중심에서 펼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광주·전남 지역 출신 작가들에게 대관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앞으로 짝수 달은 광주작가, 홀수 달은 전남작가 등을 대상으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22 G&J 갤러리 기획전으로 광주중견작가 7인 초대전 '7인의 자문자답'을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G&J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끊임없는 예술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바탕으로 독자적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김유섭·김희상·박수만·서기문·신철호 등 작가 7인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7인의 자문자답'은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중과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작가들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작가들은 예술가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공감을 안겨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답을 작품을 통해 스스로 제시해본다.

전시장에서는 회화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질문과 사유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온 김유섭의 작품을 비롯해 못난 얼굴이지만 정겨운 민초들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김희상의 조각상을 만난다.

또 '의식주'가 아닌 '식의주'라고 우선순위를 바꿈으로써 먹고사는 문제의 절실함과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진실과 본질을 찾아가는 박수만,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고립과 연결'을 화두로 사고와 케이비의 상징성을 통해 현대 상황을 은유하는 서기문의 작품을 마주할 수 있다.

화면의 절제된 분할, 콜라주와 반복적 덧칠의 흔적을 통해 급속한 물질문명 속 인간 정신성의 가치를 녹여 낸 신철호, 우스꽝스러운 진시황제와 당나라에 대한 반어적 어법으로 권력을 향한 욕망과 허구에 일침을 가하는 이형우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감각적 색채와 청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을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보여준 최재영



이형우 작 '순회'

의 작품을 통해 작가 자신 또는 사회와 예술 사이의 진지하고 진솔한 이야기와 대면하게 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유섭 김희상 박수만 서기문 신철호 이형우 최재영

커피와 그림의 공간... '사잇길'로 쪽~ 들어 오세요

한옥 두채로 구성, 청소년 등에 무료대관...27일까지 '예향제 리뷰전'

'한옥 갤러리 카페에서 즐기는 여유.'

사막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했다.

최근 광주공원 어린이헌장장 인근에 문을 연 갤러리 카페 '사잇길' (대표 이준혁·광주시 남구 구동 29-13)은 커피 등 다양한 차와 함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아담한 한옥 두 채를 연결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는 의미를 담은 사잇길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문을 열었다.

80평 규모의 카페는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본관에는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옛 물건들을 배치해 과거를 느낄 수 있으며, 별관은 그림 작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현대적인 공간으로 꾸며졌다.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즐긴 커피 관련 일을 해온 이준혁 대표는 청소년, 청년들이 마음껏 작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갤러리를 마련했

다고 전했다. 현재 이곳에는 오픈을 기념해 광주에 살고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예향제 리뷰전' (27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제 동생이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프로 작가가 아닌 이상 개인 전시회를 열기 힘들더라고요. 아마추어 작가, 특히 미술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보여 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든지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갤러리는 예향 광주의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마음 편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무료대관을 원칙으로 하며, 카페 앞 마당도 전시장으로 활용에 야외전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본작이든 습작이든 청소년의 작품 전시에 밀려들기 되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전시는 물론, 커피 음료와 디저트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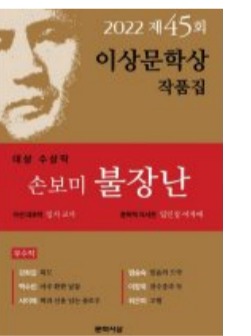


광주시 남구 구동에 문을 연 갤러리 카페 '사잇길'.

제4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발간

'2022년 제4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이 발간됐다.

작품집에는 대상 수상자인 손보미 소설가의 '불장난'을 비롯해 6편의 우수작이 수록돼 있다. 각각의 소설들은 특이한 소재적 관심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는 소설적 방법에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상 수상작 '불장난'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일종의 성장소설로서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겪는 정서적 불안과 내적 갈등을 통과례의 서사적 틀 속에서 치밀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며 "소설적 장치의 상징성과 그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작 6편의 작품은 '복도' (강화길), '아주 환한 날들' (백수린), '벽과 선을 넘는 플로우' (서이제), '믿음의 도약' (염승숙), '잠수종과 목' (이장욱), '고별' (최은미)이 실렸다.

한편 대상을 수상한 손보미 작가는 2009년 '21세기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 '디어 랄프 로렌' 등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으며 젊은작가상 대상, 한국 일본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Cafe & Gallery 사잇길